S-OIL

2014
08

S-OIL MAGAZINE
AUGUST VOL.393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장미여관〉 콘서트

구도일 캐릭터 전시회 참가

S-OIL MAGAZINE | AUGUST 2014 | Vol. 393

08

표지이야기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핵심 사업과 역량에 기반한 지속적 사업 혁신 및 확장(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을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공정Upgrading추진부를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13~17쪽)

04
주요소식

ESG 우수기업 대상 수상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기공식
담도폐쇄증 어린이 치료비 전달
제안제도 우수 · 최다 제안자 시상
구도일 캐릭터 전시회 참가 등
단신

13
최강 팀

핵심역량을 업그레이드해 지속성장 이끕니다
공정Upgrading추진부

18
소식 모아보기

총무부문 워크숍
보너스카드 회원유치 캠페인 최우수주유소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연차보고서 게재 주유소
임직원 상담 프로그램(EAP) 운영

22
두런두런 수다방

광활한 대륙에서 만난 역사와 풍경
내 인생에 역사 하나를 이뤄냈다

통권 제393호
발행일 2014년 8월 3일
발행처 에쓰-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 · 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26
햇살나눔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장미여관〉 콘서트

32
No.1 주유소

고객에게 최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충남 아산항주유소

34
가족이야기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Aromatics생산2과 남호천 사우 가족

38
걷고 싶은 길

인간과 산신이 공존하며 걷는 관동관문 황홀한 '옛길'

강원 평창 '대관령 옛길'

42
나의 롤모델

최고 소프라노의 멈추지 않는 도전 〈소프라노 조수미〉

44
야호! 축제다

오싹하게 즐기는 한여름 밤의 공포

합천 고스트파크축제

46
열린 서재

역사 뒤에 숨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 〈역사e2〉

48
마음 읽기

홀로 선 '나'는 어디로 갔나요? 〈관계 중독〉

50
독자광장

투명한 지배구조 더 큰 내일을 약속합니다

ESG 우수기업 대상 수상

우리회사가 지난 7월 3일 한국거래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4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1천790개 기업 중 '대상'을 수상했다. ESG란 기업의 환경경영(Environment), 사회책임경영(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최하고 한국거래소가 후원하는 이 상은 2002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환경경영 활성화를 유도해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및 지배구조의 전 평가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사내 인식 강화 및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개선,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의 경영성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회사는 지난 2012년에 '우수기업', 2013년에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영예의 '대상기업'에 선정돼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회사는 당사의 뛰어난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게 됐다. 또한 900만 원에 상당하는 2014년도 한국거래소 상장 연 부과금 면제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공시책임자 교육'과 '공시전문인 인증과정' 교육을 무료 수강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우리회사가 한국거래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정 'ESG 우수기업' 시상에서 영예의 '대상기업'에 올라섰다. 지배구조와 사회책임, 환경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성장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 이승건(지속가능경영팀) **사진** 전부순

미래 지구환경 생각하는 희망의 첫 삽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기공식

버려지는 폐열을 새로운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발전사업이 기공식을 통해 뜻깊은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이번 기공식은 우리회사가 지난 3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동도시가스·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과 맺은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다.

글 심규억(대외업무팀) **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기공식이 7월 23일 온산공장 내 제2아로마틱 콤플렉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봉수 수석부사장을 비롯해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박영철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봉영 제일모직 대표이사,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강길부 국회의원 등 유관기관 대표와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회사는 지난 3월 5일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동도시가스·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과 함께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실천적 노력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스팀을 생산하고 이로써 스팀터빈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 ·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을 통해 우리회사는 사업부지와 열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부지 변경과 제반 인허가 처리 등을 지원하는 울산시, 기술을 담당하는 제일모직, 투자·유지관리를 맡는 경동도시가스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기공식을 기점으로 2015년 6월 설비 준공에 이어 7월 상업생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온산공장 내 대지면적 3천306여㎡ 부지에 공장이 완공돼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가면 우리회사가 공급하는 연간 110만Gcal의 폐열로 연간 136GWh의 전기가 생산될 전망이다.

이로써 울산지역 전력예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연간 6만1천 톤의 CO_2(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가야! 꽃 같은 생명 활짝 피우렴

희귀질환 담도폐쇄증 어린이 치료비 전달

희귀질환인 담도폐쇄증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 전달식이 진행됐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급여우수리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후원이 환우 가정에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다.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사진** 전부순

우리회사가 저소득가정 담도폐쇄증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로 2억 5천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7월 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영일 부사장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치료비를 지원받은 아기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한 후원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정 담도폐쇄증 어린이의 치료비로 사용된다.

담도폐쇄증은 신생아 희귀질환으로 담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되어 담즙(쓸개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해 간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담도폐쇄증 치료를 위해서는 없어진 담도를 대신해 새로운 담도를 만들어주는 카사이 수술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생후 8주 이내에 카사이 수술을 시행했을 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데,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회사는 2009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희귀질환 담도폐쇄증 어린이를 위한 '밝은 웃음 찾아주기 캠페인' 협약을 맺고 저소득가정 어린이 환자들을 돕고 있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급여우수리 모금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후원금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6년 동안 담도폐쇄증 어린이 74명의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했다.

조영일 부사장은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에 밝은 웃음을 되찾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소아외과 전문의)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환아의 치료와 수술을 지속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아기들을 위해 에쓰-오일이 정말 진심 어린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 나눔사업의 진정성을 지금처럼 변함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우리회사는 해마다 담도폐쇄증 환아 가족을 초청해 제주도에서 햇살나눔 캠프를 갖는 한편, 사진동호회원들의 재능나눔을 통해 매달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해 전하는 등 진정 어린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우수제안자

장봉석 기계부 예방정비1과
New Actuator Cover 제작 설치

이원호 계전부 계기1과
BMS AI Termination Board Power 개선

이인석 RUC추진2팀
PxMax Stripper Overhead Drum PV 개선

최다제안자

방성민 계전부 계기1과
107건

권재현 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69건

조일충 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23건

지속성장의 꿈이 퐁퐁 샘솟는 제안샘

제안제도 우수·최다 제안자 시상

올해 2분기 제안제도 우수 · 최다 제안상 수상자들이 본사와 공장으로 나뉘어 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최근 어려운 업황 가운데 회사의 지속성장에 보탬에 되길 염원하며 안정적인 공정 운영과 수익개선을 위한 소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글 송경란 **사진** 전부순 · 디자인소호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제안과 최다제안을 내놓은 올해 2분기 제안상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에서는 우수제안자 3명과 최다제안자 3명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7월 23일과 24일 본사와 공장에서 각각 개최됐다. 수상자들은 소속임원 시상으로 표창장과 문화상품권을 받고 제안의 보람을 누렸다.

우수제안자로는 장봉석(기계부 예방정비1과)·이원호(계전부 계기1과)·이인석(RUC추진2팀) 사우가 각각 S·A·C등급으로 선정됐다. 장봉석 사우는 분해1과 공정에 가동중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작동기 커버의 제작 설치를 제안해 340억 원 손실을 막았다. 이원호 사우는 Aromatics동력과 관련 장치의 보드 전원 라인을 별도로 묶어 한 보드의 전원 상태가 다른 보드의 전원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 보일러 가동중지 발생 위험도를 낮췄다. 이인석 사우는 Aromatics생산1부 공정에 콘트롤 밸브 사이즈를 높여 운전압력을 낮추는 방법을 제안해 연간 1억6천만원의 비용절감 기대효과가 기대된다.

최다제안자 시상에서는 방성민(계전부 계기1과)·권재현(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조일충(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사우가 각각 107건·69건·23건의 제안을 제출해 상을 받았다.

고객 마음 러브 마크는 도일이가 책임집니다

구도일 캐릭터 전시회 참가·에코 프로모션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첨병 '구도일'이 캐릭터 페어 참가와 에코 프로모션으로 고객 마음 깊숙이 러브 마크를 새겼다. 도일이는 우리 브랜드와 제품의 우수성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2012년에 탄생한 이래 이번 브랜드 · 캐릭터 마케팅 활동으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글 김성준 · 강주혜(브랜드마케팅팀) **사진** 전부순

우리 브랜드 캐릭터인 '구도일'이 대규모 캐릭터 전시회에 나서 대중과 만났다. 7월 16~20일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열린 '서울 캐릭터·라이선싱 페어'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을 맞이한 것이다. 이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의 문화 콘텐츠 라이센싱 박람회로서, 올해는 총 270개 기업·기관이 941개 부스를 설치했다. 특히 130여 명의 해외 바이어와 4천여 명의 국내 바이어를 비롯해 관람객 총 12만 명이 전시회를 찾아 성황을 이뤘다. 우리 홍보부스는 행사장 내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출입구에 위치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회사는 전시회 참가와 더불어 '구도일'을 주인공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캐니멀(Canimal)'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구도일과 캐니멀의 신나는 비행〉을 발표한 가운데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작품은 기업의 브랜드 캐릭터와 상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영역을 허물고 하나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캐니멀은 평소에는 깡통(Can)이지만, 사람이 없을 때면 강아지·고양이·토끼 등 귀여운 동물(Animal)로 변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최근 EBS와 케이블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TV만화 주인공이다. 4분 30초 분량으로 제작된 작품은 지하철 LCD를 통해서도 상영된다.

관람객들은 귀여운 구도일 캐릭터를 단박에 알아보고 우리 홍보부스를 관심 있게 살펴봤다. 구도일 탈 인형의 퍼포먼스에 호응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진행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경품으로 받은 열쇠고리를 비롯해 USB저장장치, 어린이우산 등 전시상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우리 캐릭터와 함께 전시회를 한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좋을 굿(Good), 기름 오일(Oil)' 즉 '좋은 기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우리 브랜드와 제품의 우수성을 좀 더 친근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 구도일. 기름방울 모양의 귀여운 외모에 천진하게 웃는 얼굴을 한 구도일 캐릭터와 함께 우리회사는 고객 마음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구도일
캐릭터
전시회참가

에코프로모션

한편 올해 브랜드·캐릭터 붐업 커뮤니케이션 및 캐릭터 마케팅 일환의 에코 프로모션이 7~8월 진행됐다. 에코 프로모션은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활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로 '착한 소비'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브랜드 마케팅이다.

올해는 카 다이어트(Car Diet)와 구도일 태그(GOODOIL Tag)로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차내 불필요한 짐을 줄여 연비 개선을 유도하는 카 다이어트는 주유소에 차량 계근대를 설치해 고객이 적정 무게와 초과된 무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차내 적정온도가 표시되는 구도일 태그를 배포해 에어컨의 과도한 사용을 경계함으로써 연료를 아낄 수 있도록 돕는다.

에코 프로모션 첫 해에 탄생한 히어 벌룬(Here Balloon) 캠페인은 주차할 곳을 찾아 다니며 소모하는 연료를 아낄 수 있도록 빈 주차공간을 알리는 헬륨풍선 설치물을 고안했고, 이는 칸느 국제광고제를 비롯한 해외 유수 광고제 수상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자동차 운행 정지 시 기어 중립을 독려한 뉴트럴 스티커(Neutral Sticker) 캠페인에 이어 올해 시행하는 카 다이어트·구도일 태그 캠페인은 지구환경을 지키는 착한 소비를 통해 회사와 고객이 모두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자는 메시지로 고객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 있다.

대중 가까이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캐릭터 '구도일'

S-OIL NEWS

무디스 평가 국제신용등급 '안정적' 상향

우리회사의 국제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7월 8일 사우디 아람코의 에쓰-오일 지분 추가 인수 약정으로 강력한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회사 신용등급이 Baa2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우리회사는 최근 어려운 정유 · 석유화학 업황 가운데 국내 정유사로는 유일하게 국제신용 등급이 상승함에 따라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이번 국제 신용도 상승은 우리회사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되며,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사우디 아람코가 한진에너지의 에쓰-오일 보유 지분 28%를 약 2조 원에 매입해 총 지분을 63%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는 우리회사 지분 35%를 보유한 AOC(Aramco Overseas Company)의 모기업으로 지난 7월 2일 한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에쓰-오일 지분 3천198만 주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우디 아람코의 칼리드 알 팔리(Khalid A. Al-Falih) 총재는 공식 발표문에서 "이번 주식 매입을 통해 사우디 아람코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과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아람코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에쓰-오일 성장에 대한 AOC의 적극적인 지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제16차 무재해 100만인시 달성

온산공장이 제16차 무재해 안전기록 100만인시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2014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99일째인 7월 12일에 수립됐다. 이를 계기로 전 임직원은 안전수호를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해 무재해 안전기록을 끝없이 돌파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울산복지재단 장애인 단체·시설 지원

울산복지재단이 기업 나눔문화 실천의 일환으로 장애인 단체·시설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7월 16일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한 가운데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김상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만나 성금 1억 1천100만 원을 기부할 뜻을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울산지역 내 20개 장애인 단체시설 지원금으로 쓰인다.

울산복지재단은 올해 2억 원 상당의 백미(20kg) 3천945포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게 5천7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2007년부터 현재까지 소외이웃과 사회복지단체·시설 등을 위한 나눔사업에 총 55억 3천만 원을 사용했다.

공무부 3분기 안전캠페인

공무부가 '계단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내세워 3분기 안전캠페인을 펼쳤다. 공무부는 추락·낙상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 계단을 주목하고, 계단을 이동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전 난간(손잡이) 잡기, 비 오는 날 계단 이용 전에 안전화 물기 제거하기 등을 안전수칙으로 제시했다. 7월 15일에는 캠페인 확산을 위해 온산공장 정문에서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출근길에 오른 임직원과 협력업체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고 안전캠페인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안전강화 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고객 초청 스페셜 시네마 데이트 시행

우리회사는 피서철을 맞이해 한여름에 어울리는 영화 〈해적 : 바다로 간 산적〉과 함께 스페셜 시네마 데이트를 시행했다. 8월 7일 서울 용산 CGV 전관 대관 행사를 통해 보너스카드 고객 및 주유소·충전소·법인 딜러와 S-OIL서포터즈 등 전체 800커플에게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손예진, 김남주 등 주연배우와 감독의 무대인사를 접하고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또한 상영 전에 별도 리셉션 공간에서 다과를 즐기고 '구도일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공 받으며 스페셜 시네마 데이트의 추억을 간직했다.

인사동정

파트리더 임명

8.1 이규식(2급.윤활기유국내영업팀)→윤활기유국내영업팀 윤활유파트리더

보직변경

7.8 윤종열(1급.장치부장)→기계부장 이대성(1급.연차보수팀리더)→장치부장 정재훈(전문부장.연차보수팀)→장치부 장치1과장 박주용(3급.장치부 장치과장)→장치부 장치2과장 정윤섭(대리.장치부 기계1과) 지용재(대리.장치부 장치과)→장치부 장치1과 변석호(대리.장치부 장치과)→설비관리계획팀

7.9 이승섭(3급.서부네트워크관리팀–광주지사 파견)→서부네트워크관리팀

7.14 김재현 임성훈(5급.소매관리팀부)→서부영업지원팀 김현호(5급.소매관리팀 부)→중부영업지원팀

8.1 남만석(3급.업무부 보안과)→업무부 보안과장 문점성(3급.업무부 보안과장)→업무부 보안과 김태정 권대웅(윤활마케팅전략팀)→윤활기유국내영업팀

IFP School 교육 파견

7.23 최동범(4급.생산조정팀)→인력개발팀 부(휴직)

7.28 허성훈(4급.공무부 설계2과)→인력개발팀 부(휴직)

정년퇴직

7.31 최무기(2급.업무부 총무과)
박석규(2급.중부지역본부장 보좌역)

퇴직

7.11 이상두(5급.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
최은연(일반사무직2급.기술교육팀)

7.17 정태호(5급.생산조정팀)

7.22 문충식(3급.청주지사)

7.28 고동해(5급.RUC관리팀)

부음

7.3 이민영(계기2과) 조모

7.8 서광덕(직영주유소관리팀) 빙부
최상희(경리과) 부친
손순영(중부영업지원팀) 빙부

7.11 한경선(서부영업지원팀) 부친

7.12 이상민(브랜드마케팅팀) 부친

7.23 정성훈(네트워크개발팀) 조모

7.28 임민규(PX생산2과) 빙부

7.31 김영진(설비관리계획팀) 빙모

결혼

7.19 안성환(건설팀) 딸

8.23 서세홍(강남지사) 딸

9 Corporate Initiatives

핵심 사업과 역량에 기반한
지속적 사업 혁신 및 확장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핵심역량을 업그레이드해 **지속성장 이끕니다**

공정Upgrading추진부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핵심사업을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역량을 혁신, 확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회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속성장을 견인하려 한다. 프로젝트의 한 축이자 사업혁신 업무를 일임하는 공정Upgrading추진부는 오늘도 쓴 과정 뒤의 달콤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SUPER 프로젝트, 우리 손에 있소이다!

우리회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핵심사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존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SUP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Upgrading추진부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기존 공장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담당하고 있다.

"공정Upgrading추진부는 올 3월에 생긴 부서로 기존 공정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주요설비 및 대부분의 공정을 포함합니다."

홍승표 부장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부서를 소개했다. 창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는 부담감 대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다는 희망이 엿보인다. 젊은 부서원들이 긍정적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주고 있어 더욱 힘이 난다는 홍승표 부장은 현장의 힘을 믿는다.

"엔지니어 한 명이 설비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숙련된 엔지니어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현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니어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기계에게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공정과 설비에 대해
의사와 같은
엔지니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혁신이 혁신을 낳는 도전의 장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2017년까지 이어집니다. 실행가능성 확인(Feasibility Study)과 실행 전 기본설계(Basic Engineering)를 지나 상세설계(Detail Engineering)와 구매 및 발주(Procurement), 공사(Construction)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거치면 괄목한 만한 추가 수익창출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 정기보수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일정은 빡빡하고 업무강도는 높다. 하지만 가동 중단 없이 프로젝트를 해낸다는 희열 또한 크다.

"과거에는 주로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개선에 집중했어요. 지금 우리 업무는 효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오래 되면 보수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업그레이드한 결과물 역시 언젠가는 다시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지금 프로젝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혁신에는 또 다른 혁신이 따르고,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 부서는 엔지니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라이선싱 · 엔지니어링 업체 전문가들을 상대하며 업그레이드되는 부서원을 보면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회사의 혁신으로 이어가는 공정Upgrading추진부와 함께 임직원 모두는 오늘도 장밋빛 미래를 그려간다.

MINI INTERVIEW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공정Upgrading추진부가 나아갈 방향

SUPER 프로젝트는 'S-OIL Upgrading Program of Existing Refinery'의 약자입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는 회사의 지속성장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것을 Upgrading 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을 맞이할 겁니다. 회사의 지속성장에 따라 새로운 'SUPER 2', 'SUPER 3'로 우리 역량이 무한확장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부서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원대한 프로젝트를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맡은 업무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물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은 달콤할 거라는 걸 말해두고 싶습니다.

공정Upgrading추진부 **홍 승 표** 부장

정유공정Upgrading과 **정 동 건** 과장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신입사원부터 경력직원까지 모두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업무를 훌륭히 소화해 무척 자랑스러워요. 경력이 풍부한 선배께서 프로젝트 착수 즈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백 번씩 막막한 상황과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일은 완수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매일 어려움이 닥치지만 지금까지처럼 같이 풀어나갑시다!

HOU혁신1과 **허 민 구** 과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료들에게

우리 과 소속직원 평균 나이가 29세로 매우 젊은데, 20대의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이 엔지니어로서의 밑천이 되고, 회사 수익으로 실현되는 등 훌륭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 자신감을 잃지 말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파이팅!

HOU혁신2과 **한 민 수** 과장

우리들 모두에게 힘이 되는 한 마디

엔지니어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 큰 설비를 엔지니어 한 사람이 모두 다룰 순 없겠지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설비는 좋아집니다. 이를 따라잡고 선도하려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네트워크가 기술교류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미래 구상한 현장

총무부문 워크숍

글 김태현(총무팀)

조직개편 이후 첫 총무부문 워크숍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를 돌아보고 하반기 알찬 운영계획을 세우며 팀웍을 북돋워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7월 11~12일 이틀간 저희 총무부문은 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곤지암리조트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홍상기 차장님을 도와 워크숍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설레고 걱정도 되었지만 부문 전체로 보았을 때 임직원 전원이 처음으로 모두 함께 모이는 행사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막상 워크숍이 시작되자 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더군요. 자칫 딱딱한 시간이 되기 쉬운 주제 발표 및 토의 시간에는 발표자 분들이 훌륭하게 준비해주셨고 참석 임직원분들께서는 도움이 되는 질문과 답변으로 받아주셔서 알차게 채워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저녁식사 시간, 다음날 열린 체육 행사 등에도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행사를 즐겨주셔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미숙한 준비로 인해 중간 중간 불편하셨을 텐데도 양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총무부문 선배·동료 사우님들께 지면을 빌어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워크숍 개요

일정 7월 11~12일

장소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

발표 및 토론

❶ 부문 KPI
❷ 팀별 상반기 Performance Review 및 하반기 계획
❸ Smart Working 토론

기타 족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보너스카드와 고객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합니다

보너스카드 회원 유치로 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최우수주유소에 대해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철학과 창조적인 조직문화로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연차보고서에 게재된 주유소를 소개합니다.

"보너스카드 회원 가입하시고 더 큰 혜택 받으세요!"

글 석영홍(멤버십마케팅팀)

'110캠페인' 회원유치 최우수주유소 선정

영업현장의 실질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구도일패밀리 1·1·1 시즌2' 프로그램 시행 중인 가운데 이와 함께 진행한 '110캠페인' 회원유치 최우수주유소에 대해 시상식을 갖고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했습니다.

보너스카드 회원유치 최우수주유소로 선정된 4개소는 어려워지는 주유소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보너스카드 회원유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주유소

운영인과 주유원 모두 '1일 10명 이상에게 보너스카드 배포하기'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실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코알라주유소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보너스카드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고객에게 보너스카드 혜택 설명 및 가입 권유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신거제주유소

매일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를 방문고객 대상의 보너스카드 홍보활동 시간으로 정하고 신규회원 유치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행복주유소

보너스카드 회원 가입 고객에게 '무료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로 승부
(대전시 동구 우암로)

백산주유소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주유소

글 김용수(강남지사)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연차보고서에 실린 백산주유소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 결과와 서비스품질 관련 글, 벤치마킹 자료 등을 소개하는 종합보고서 〈2014년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연차보고서〉에 백산주유소가 게재됐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직업적 자긍심에 집중하고 직원 스스로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서비스품질 향상을 이끌어낸 주유소 운영관리 원칙이 소개됐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임직원 마음을 어루만져드립니다

임직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글 서진영(복리후생팀)

우리회사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임직원 상담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으로 고민을 해결하세요.

우리 주위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임직원 상담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이 제도는 대인관계, 직장문제, 가정문제,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담신청 건별로 5회 상담이 진행되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픈 일, 답답한 문제를 쌓아두고 있다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민, 스트레스 모두 해소하세요!

국내 어느 직장인의 상담 사례

직장인 A씨, 일을 시작하고 1년 정도는 힘들어도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 보니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은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고 토로했다. 그랬더니 배부른 소리 한다며 그냥 참고 다니라는 말에 갑자기 화가 버럭 올라와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라고 화를 내게 됐다. 악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나를 위하는 마음에 한 말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인은 직장상사와의 시도 때도 없는 마찰이다. 직장상사는 직속상관으로 하루 종일 업무로 부딪힐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가장 친한 상사가 될 법도 한데 너무 자주 부딪히다 보니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괴롭다.

상사는 나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굴고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자존감을 깔아뭉개는 말들을 서슴지 않는 상사와 지내다 보니 지나치게 위축되고 다른 동료들까지도 나를 무능한 사람처럼 여길까 두렵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회사를 그만 둘까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자신이 결단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 이제는 그 생각도 하지 못하겠다. 그런 고민들을 친한 선배에게 털어놓으니 회사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을 권해주셨다. 본인도 상담을 받아봤다는 말에 한번 믿고 시험 삼아 받아보기로 했다.

대인관계와 외로움에 지친 나는 상담이 진행되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기 시작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수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움츠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못나서'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던 것 같았다.

상담을 받다 보니 용기를 갖게 되면서 조금씩 타인의 반응에 덜 민감해지고 주위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생겼다. 상사의 행동을 분리시켜 볼 수 있게 됐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마음 상하기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상사의 비합리적인 명령이나 태도도 문제지만 그러한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비난해왔던 습관적인 태도가 우울이나 불안한 감정들을 더 키웠다는 것도 알게 됐다.

우리회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민과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하세요!

상담주제	대인관계, 직장문제, 가정문제,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
이용대상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자녀
상담횟수	직원 1인당 5회(회사에서 비용 지원)
상담신청	**Tel** 080-080-5988
	E-mail dain@daincnm.co.kr
	홈페이지 www.eapkorea.co.kr

상담절차

- Step 1 **상담신청** 전화/메일/홈페이지 신청
- Step 2 **상담예약** 상담코디가 예약 진행
- Step 3 **전문상담** 대면/전화/메일 상담
- Step 4 **해피콜** 상담 후 관리

※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

광활한 대륙에서 만난 역사와 풍경

잊지 못할 중국 서안시 여행

곽 기 우 수소3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1

우리의 여행은 농담으로 시작됐다. 2013년 10월초 수소3과 B조에 새로 합류한 김남구 사우가 여행 한 번 가자는 반 농담의 말을 우리에게 건넸다. 여행 이야기는 순식간에 모두의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속전속결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중국 섬서성의 고도 서안시를 목적지로 정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하여 여행을 떠났다.

중국 여행의 첫날에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행, 일정은 이틀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명나라 시대에 세워진 성벽, '명대성벽'을 찾아갔다. 이 명대성벽에서는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마라톤 대회도 개최된다. 또한 서안시는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진시황 병마용이 있는 곳이다. 서안시 경제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병마용의 경제적인 가치가 엄청나다고 하니, 천하통일 후 만리장성, 아방궁 축조 등 엄청난 부역으로 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진시황이 사후에 이렇게 자기의 후손들을 먹여 살릴 줄 생각이나 했을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음에는 중국 5대 명산 중 하나인 화산을 등반했다. 화산 또한 화음시 전체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서안에서 버스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이곳은 중국의 소설가 김용이 쓴 무협지 사조삼부곡(사조영웅전, 신조협려, 의천도룡기)의 주요 무대이다. 그러나 막상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무대인 옥녀봉은 상상했던 것보다 초라해서 실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우리 일행들은 화산 서봉 케이블카를 타고 서봉에 올라갔다. 서봉에서 남봉, 동봉, 중봉을 거쳐 북봉에 도착하여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화산에서 하산했다.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가 화산을 방문하던 날 연 강우량이 500~600mm 정도 밖에 안 되는 화산에 비가 내렸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 중 하나인 장공잔도가 비 때문에 폐쇄되어 제대로 건너볼 기회가 없어져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화산에서 내려온 후 우리는 중국의 KTX격 열차인 동차를 타고 낙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는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용문석굴을 방문하였다.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만난 중국아이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중국 여자아이들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엄청난 호감을 보여 같이 사진을 찍게 되었다. 과연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한류의 현장이었다.

그 후 우리는 중국 무협의 본고장 정주의 소림사를 방문하였다. 사실 소림사 자체는 큰 기대만큼 볼 것은 없었다. 세계문화유산인 탑림도 보았으나 그렇게 큰 감동은 주지 못하였다. 다만 소설책이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곳에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크나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다음날에는 운대선 · 경로로 이동하여 홍석협, 담폭협, 천폭협을 구경한 후 기차를 타고 다시 서안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날에는 병마용 박물관 및 화청지, 진시황 지하궁전을 구경하였다. 저녁에 화청지에서 펼쳐지는 장한가 공연을 끝으로 우리들의 중국여행은 마무리되었다.

중국에서 4박6일 동안 회사 동료들과 보냈던 시간은 정말 뜻깊었다. 여러 역사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중국의 5대 명산까지 볼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우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다시 한 번 같이 여행을 가고픈 마음이다. 함께한 그 시간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에 더욱더 아쉬운 생각이 든다.

1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중 하나인 화산 장공잔도(長空棧道)
2 화산(華山) 서봉(연화봉)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
3 낙양에 있는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중국 학생들과 함께!
4 흙으로 만든 인형인 토용과 병마용

1

내 인생에 역사 하나를 이뤄냈다

20개월 만에 이루어 낸 백두대간 종주

정호선 환경관리팀

언젠가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진 그 길을 다시 완주할 날을 꿈꿔봅니다

처음 백두대간 종주를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나하곤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시산제를 지낸다는 말을 듣고 멋모르고 따라갔다가 얼렁뚱땅 종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종주를 시작했을 때는 여행 삼아 등산을 하는 나와는 산행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해 갈등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산행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기대가 앞서기 시작했다. 지리산부터 진부령까지 길게 이어진 '능선'의 매력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을 모두 오를 수 있다는 유혹은 결국 나를 이겨버렸다.

백두대간! 찬란하고 웅장한 만큼 힘든 여정이었다. 체력보단 오기와 뚝심으로 완주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건강해지고 있음에 무엇보다 잘

했단 생각이 든다. 그렇게 타고난 체력대로 살아야지 싶었던 나는 점점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건강해지자 별걸 다 한다고 핀잔을 하던 가족들도 나를 응원했고 자랑스러워했다.

왜 이렇게 힘든 걸 사서 하나 하면서 산행 전날 밤까지만 해도 '가지 않겠다' 다짐을 하다가도 새벽이 되면 일어나 배낭을 꾸리던 시절도 있었다. 영취산 구간에서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겨우 하산했더니 등산하는 내내 달리고 싶었다는 몇몇 선두그룹의 말에 얼마나 기운이 빠졌던지 모른다. 능선이고 산봉우리, 산야가 모두 한 폭의 그림과 같아 눈을 떼기 어려웠지만 눈길에 다리가 푹푹 빠졌던 황점–신풍령 구간,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느껴져 삿갓봉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월성재로 향했던 날도 생각난다.

오직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겠다는 일념으로 선두와 후미 모두 하나가 되어 이동했던 작점고개, 여린 진달래꽃잎 위, 솔가지 위에 하얀 눈꽃이 피어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듯 느껴졌던 비재–지기재 구간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촉촉하게 젖어 굽이굽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며 내뱉었던 탄성!

아픈 다리를 끌며 돌길을 걷는 등 천신만고 끝에 완주한 미시령–한계령. 올라도 올라도 끝이 없어 진을 다 뺀 진고개 마늘봉, 정상석도 없어 더욱 얄미웠던 약수봉, 무슨 봉우리가 그리도 많은지 벚꽃이 휘날리는 봄날에도 아이젠 없이는 힘들었던 험한 산세의 구룡령. 어느 하나 쉽게 올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고적대에서 바라본 풍광은 가슴을 벅차게 했고 산은 나를 끝없는 스스로와의 싸움으로 몰아넣었지만 힘든 만큼의 대가를 늘 풍경으로 치러주었다. 도도하고 우아하게 핀 보랏빛 얼레지가 아직도 눈에 선한 석병산 구간 등 많은 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며 백두대간 종주를 즐겼다. 그렇게 결국 진부령 마지막 한 곳만이 남았다. 홀가분함과 벅참이 교차했다. 당일 나는 황홀한 여명에 취했다. '아~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참으로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진부령의 절경은 웅장하다 못 해 경이로울 정도여서 그대로 거실에 갔다 놨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다. 물론 마지막 구간인 만큼 산행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다짐하지 않았던가. '즐겨보리라. 고통까지도 음미하고 느껴보리라. 즐기면서 품으리라!' 그렇게 도착한 진부령! 완주했다는 기쁨에 먹먹함이 솟구쳤지만 축하사절단의 샴페인 축제에 이내 먹먹함은 묻혀버렸다. 2012년 10월 15일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15일, 정확히 20개월 만에 734km 35구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나는 해냈다! 그간 백두대간 종주를 하며 35군데 중에 쉬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언제나 지치고 힘들 때에는 진부령에 서있는 나를 상상했다. 그렇게 참아내고 이겨낸 나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국토사랑이 내 속 가득 피어오른다. 지리산에서 시작해 진부령에서 멈춰버린 백두대간의 '능선'이 언젠가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날, 다시 뭉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한분, 한분 잊지 못할 동료를 만들어 준 백두대간에게 정말 감사하다.

1 무령고개~황점 구간의 운무를 배경으로 찰칵!
2 선자령 하산길 눈으로 뒤덮인 풍경을 품에 안았다
3 함백산 정상에서 만난 일출
4 차갓재~저수령 구간을 걷다가 만난 풍경
5 매봉산 하산길에 표지석을 두고 풍경을 찍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한 '햇살나눔'입니다

2014년 7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유난히 장마가 짧아 햇볕이 더욱 따갑게 느껴지는 7월, 햇살나눔봉사단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봉사단을 시원한 웃음으로 맞아준 이웃과 함께 해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다.

7 JULY

5

❶ **강릉지사** 성은모자원을 찾은 봉사단은 약 3시간 동안 시설 주변의 풀을 뽑고 청소를 하는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❷ **전주지사** 봉사단은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와 함께 약 4시간 동안 군산 결식노인 중식 제공과 설거지, 배식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10

정유생산부 봉사단은 수연재활원 원우들과 장애어린이 사회체험활동에 나서 일일 도우미 역할을 했다.

11

분해1부 약사경로당을 찾아간 봉사단은 어르신들과 '라이스 클레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 떡을 빚었다.

12

윤활생산부 봉사단은 울산동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과 함께 2014 Green Village 가꿈 사업의 일환으로 '나만의 환경 텀블러 만들기'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20

사진촬영동호회봉사팀 봉사팀은 담도폐쇄증 어린이 가족의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앨범을 제작해 선물했다.

22

대구지사 봉사단은 청구재활원을 찾아 차량유지 및 난방유 구입 등에 필요한 우리회사 주유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하고 식사 준비 봉사활동을 했다.

26

❶ 부산지사 사회복지법인 미애원을 찾은 봉사단은 기존 노후한 선풍기를 벽걸이 선풍기로 교체하는 등 필요물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복지기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시설 내 환경미화활동을 펼쳤다.

❷ 공무부 봉사단은 메아리학교 농아들과 함께 경주 블루원워터파크에서 즐거운 물놀이를 하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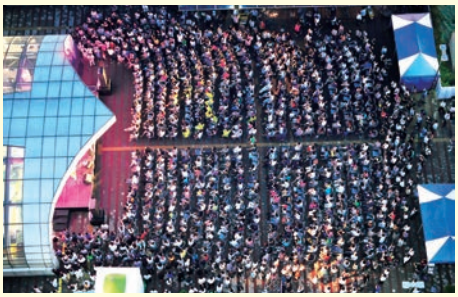
HOT

핫한 밴드의 속 시원한 나눔 공연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장미여관〉 콘서트

글 원유진(운영지원팀) **사진** 전부순

지난 7월 24일 본사 사옥 앞에 위치한 공항철도역 광장에서 요즘 '핫'한 4인조 밴드 〈장미여관〉이 600여 관객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오! 빠! 라고 좀 불러다오!!" 객석을 가득 메운 인근 지역주민과 일반 관객은 물론 퇴근길 직장인과 행인까지, 밴드의 히트곡이 이어지자 발길을 멈추고 음악을 즐긴다.



우리회사는 2011년 6월 본사 신사옥 입주와 함께 문화나눔 네트워크 '시루'와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나눔캠페인'을 선포했다. 공연예술단체 후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본사 공간을 무료 공연 무대로 개방하고, 국악 · 오케스트라 · 밴드 등 뮤지션은 물론 인형극 · 마술 쇼 · 퓨전 타악 · 코미디언 퍼포먼스 등 전방위 영역의 예술가들을 초청했다. 알찬 문화공연을 정례화한 결과 삼삼오오 모여들던 관객이 사전신청을 받아야 할 정도로 폭증하면서 올 여름 누적관객 수는 1만 5천여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내내 흩뿌린 장맛비로 인해 공연 진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자 공항철도역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다행히 비가 그치고 더위마저 싹 가신 무대 위에서 〈장미여관〉 밴드는 원없이 연주를 이어갔다. '봉숙이', '오빠라고 불러다오', '너 그러다 장가 못간다' 등 시원한 사운드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로 중무장한 곡들에 호응해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 배부한 600개 좌석표는 관객 1천여 명이 몰린 가운데 일찌감치 매진됐다. 현장에는 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도 많았고, 밴드의 최근 인기를 반영하듯 팬을 자처한 관객들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우리회사는 마포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는 본사 사옥 거점의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을 비롯해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비가 그치고
더위마저 싹 가신
무대 위에서
풍성한 나눔 공연

봉사의 참뜻을 이어갑니다

햇살나눔 활동 이모저모

봉사활동은 사랑을 실천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다.
숭고한 봉사활동을 펼친 이들의 정신을 본받고
더욱 큰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광주 소방헬기추락사고와
제주 단란주점화재 순직소방관에게는 위로금을 전달했다.
임직원 자녀들은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캠프에 참가했다.
미래로 전해지는 나눔활동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광주 소방헬기추락 · 제주 단란주점화재 순직소방관 유족 위로금 전달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지난 7월 제주 서귀포 단란주점 화재에 이어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도 여러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우리회사는 유족의 슬픔을 함께하고 순직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위로금 1억 8천만 원(각 3천만 원)을 전했다.

故강수철 소방경(제주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장)은 지난달 13일 저녁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의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진입한 뒤 건물 내부를 수색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순직했다. 뒤이어 17일에는 강원도 특수구조단 소속의 정성철 소방경(조종사), 박인돈 소방위(조종사), 안병국 소방장(정비사), 신영룡 소방교(구조대원), 이은교 소방사(구조대원)가 헬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은 앞서 14일부터 진도 팽목항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벌인 뒤 복귀하던 길에 사고를 당해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임직원 자녀 '청소년 자원봉사 서바이벌 캠프' 참가

글 윤수현(대외업무팀)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배내골 대추나무 캠핑장(울주군 상북면 배내로)에서 임직원의 자녀 50명이 참가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서바이벌 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는 방학기간을 맞은 임직원 자녀들이 자원봉사 마인드를 향상하고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내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임직원 자녀들은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비롯해 장애체험, 자원봉사 인식개선 캠페인 피켓 제작, 자원봉사 퍼즐 맞추기 등 미션 포스트 게임과 환경정화 트레킹 등에 참가했다. 특히, 미션 포스트 게임은 협동심과 배려심, 창의력 등을 발휘해 맛있는 저녁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를 획득하는 복불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직원 자녀들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보호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캠프는 2010년부터 5회째 시행중이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고객에게 최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충남 아산항주유소

지역주민과 화물차 운전자의 오아시스 같은 아산항주유소를 찾아갔다. 주차공간 및 기사대기실 제공은 물론, 샤워시설, 세탁시설, 라면 제공, 열린 화장실 운영, 화물차 자동세차기, 소형차 셀프세차기 등 각종 편의를 모두 누릴 수 있다.

◀ 이복환 대표(오른쪽 첫 번째)와 직원들

바로 옆 자동차전용고가도로로 인해 좋지 않은 도로여건과 인수 전 브랜드 없이 운영되던 주유소의 나쁜 이미지를 이겨내고 고객을 늘려가는 주유소가 있다. 2012년 11월 개업한 아산항주유소다.

"20여 년간 브랜드 없이 운영되던 주유소였어요. 지역특성과 인지도를 고려해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전 주유소가 그렇게 악명이 높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정품정량을 철저히 실천하고, 보너스카드 혜택 및 행사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해 고객인식을 많이 개선했어요. 고객이 점차 느는 추세입니다."

인수 전 주유소는 유사기름을 판매하는 건 물론, 주민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저급유를 배달하거나 주유량을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복환 대표가 인수하고부터는 믿음을 주는 주유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유소, 주민들에게 열린 주유소로 거듭났다.

이복환 대표는 개업 시부터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인근에서는 아산항으로 들어오는 저급유가 유통되곤 하지요. 우리는 정면승부로 돌파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걸로 말이지요!"

고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모든 걸 제공합니다

"고가도로가 앞에 있어 타 도로에 비해 통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 업무차량 및 납품차량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고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화물차를 운용하는 기업이 많아요. 직접 발로 기업 사장님을 찾아다니며 거래를 텄습니다. 그뿐인가요? 확보한 고객에 대해서는 화물우대복지카드와 보너스카드를 중복 할인 적용해 단골을 만들었습니다."

아산항주유소를 둘러보면 1천600여 평의 넓은 부지가 모두 화물차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기 또는 휴무하는 화물차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화물차들이 주유소 뒤뜰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다. 평일 낮에는 20여 대가 주차되고 주말에는 80여 대까지도 주차해 장관을 연출한다.

화물차 최고 대우를 이만큼 조목조목 실천하는 곳이 또 있을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사대기실을 만들어 쉴 수 있도록 했고 출출할 때를 대비해 라면과 취사용품도 상비한다. 기사대기실엔 이불과 전기판넬이 갖춰져 추위에도 문제가 없다. 주유소 2층을 보수해 편의공간으로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형세차기는 아산항주유소의 자랑이다. 화물차가 무슨 세차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화물차는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주로 달리기 때문에 더더욱 세차가 필요하다.

"대형자동세차기를 올 3월에 도입했습니다. 주변에 대형세차기를 가진 곳은 우리뿐이죠. 단골은 무료, 일반 화물차 고객은 15만 원 이상 주유 시 1만 원의 세차비를 받습니다."

이복환 대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유소 이미지 개선과 홍보에도 거침이 없었다. 고객도 고객이지만 무엇보다도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해야 주유소의 생명이 오래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농사로 인해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르신께 면세유 사용에 대해 설명하러 다니고 인근 지역 마을이장을 직접 찾아간 적도 부지기수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열린화장실을 운영한다. 밤에 어두운 길을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 조명을 밝혀놓기도 한다.

"화물차 운전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웃과 함께 누리고 함께 커야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운영철학과 시설, 아산항주유소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주유소가 될 조건을 다 갖췄다.

이복환 대표

아산항주유소를 소개한다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주유소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서비스를 특화한 주유소로 기사대기실, 주차공간, 샤워시설, 세탁시설 등을 화물차주님께 열어두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해 열린 화장실도 운영합니다. 화물차 자동세차기는 아산항주유소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는

에쓰-오일 주유소로서 이미지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님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품정량과 최고의 서비스를 유지해 지역매출 1위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산항주유소

아산테크노밸리에서 아산만방조제 가는 34번 고가도로 아래, 백석포사거리에 위치한 주유소다. 화물차 대형자동세차기, 기사대기실 운영 등 화물차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 지역민과 화물차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191(백석포리 274-1)
☏ 041)542-8928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Aromatics생산2과
남호천 사우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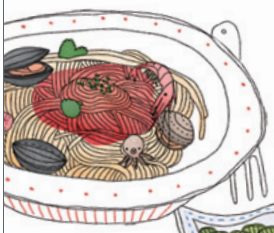
특별한 신청자가 '가족 이야기' 코너의 문을 두드렸다. 꼬박꼬박 사보를 읽고 회사소식을 접하던 사우의 아내가 조용한 남편을 위해 참여를 생각하던 중에 딸이 거들어주어 이벤트를 신청했다.

스테이크 전문점에 남호천 사우와 그의 아내 정진화씨, 초등학교 3학년생 딸 샤론이 들어섰다. 손에는 장미꽃 몇 송이를 들고서. 장미꽃을 나눠준 세 식구의 얼굴이 활짝 편다. 곧 능숙한 손길로 장미 한 송이를 다듬어 물컵에 꽂아놓는 아내. 소박한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화사해진다.

"딸 샤론이 꽃 선물하기를 좋아해요. 어때요,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딸은 사우 부부의 보물 1호다. '샤론'이라고 소개하면 진짜냐고 되묻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이 크고 위대한 자'라는 뜻을 가진 본명이다. 아침, 저녁으로 서로의 일과에 대해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가족은 서로를 많이 이해하는 만큼 서로를 믿는다. 그래서인지 샤론은 모난 데 없이 밝고 주변을 즐겁게 한다.

> 감사가 넘치는 가족,
> 겸손과 미소로
> 빛과 소금이
>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 조용하고 화목하답니다

정진화씨는 요리연구가다. 요리학원에서 강사로 지내던 시절, 수강생 아주머니의 소개로 남호천 사우를 만났다. 남호천 사우는 평소에도 매우 조용하고 남에 눈에 띄는 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데 청혼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먼저 청혼을 했다! 이렇듯 활달하고 매사 적극적인 아내이지만 임신과 육아를 위해 요리수업을 과감하게 그만 두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아이의 성장과정을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알죠. 그런 만큼 친구를 사귐에 있어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 사귀기보다 친구를 가리지 않고, 모두와 잘 어울리는 아이였으면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아내 정진화씨가 풀어나간다. 그동안 남편과 딸 샤론은 투닥투닥 장난을 치고 음식을 서로 먹여주기 바쁘다. 성질이 차분하고 자상하다는 남호천 사우는 특히 딸바보다. 샤론이 없으면 잠도 못 잔다. 샤론 역시 마찬가지로 아빠가 없을 땐 아빠의 러닝셔츠를 끌어안고 잔다. 딸에게 아빠는 친구이자 삶의 지침이다.

부부사이 역시 좋다. 부부는 소위 '마실'을 자주 다닌다. 또, 아내가 요리할 때 남편은 보조를 잘 해준다. 아내는 남편의 데코레이션 솜씨가 요리연구가인 자신보다 뛰어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세 식구는 집에서도 직접 만든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지만,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가족과 대화하며 즐기는 식사가 무척 기분 좋다며 싱글벙글이다.

자랑스러운 딸 샤론, 꿈을 펼치기를!

샤론의 꿈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여자대통령이라는 꿈은 이제 이룰 수 없게 됐지만 최고의 여자대통령은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실은 이틀 전에 샤론이 상을 받아왔어요. 영어연극대회에 참가했거든요. 화요일이 대회였고, 그제인 금요일에 시상식이 있었죠."

부부의 딸 자랑은 단순히 딸이어서가 아니다. 영어영재반인 샤론은 책읽기를 좋아하고 글짓기도 잘 한다. 샤론의 독서량이 큰 역할을 한 덕분에 학교에 다독지원금이 나왔을 정도다. 이런 딸을 위해 부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청와대 방문을 신청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청남대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 리더쉽 캠프에 참가하도록 해서 미래의 꿈을 조금씩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아빠에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서로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세 식구에게는 꼭 실현시키고 싶은 몇 가지 목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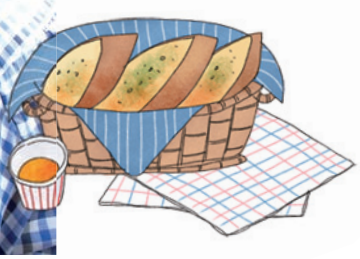
"1년 내에 샤론이와 함께 미국 초등학습 캠프에 온 가족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도 가족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말을 마친 세 사람은 "가족이 함께 나오는 사진이 가장 소중하다"면서 아기자기한 레스토랑의 여러 소품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삶의 보물인 아내와 딸에게...
가장으로서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더 잘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빠에게 가족이라는 사명을 준 딸 샤론아. 지금처럼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딸에게...
목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나 때문에 힘든 때가 많은 걸 알아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회사와 가정생활 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부부에게 기쁨으로 온 샤론, 이름대로 자라길 바래~!
부모님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 그렇지만 가끔은 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문의 sabo@s-oil.com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해요



글 하준호(안전관리팀)

우리 천사가 이제 백일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다가와준 천사 태범이 덕분인지 일이 술술 잘 풀리네요. 이대로 건강하게 자라다오. 백일 축하해!

우리 천사는 지난 2월 20일 우리 품으로 왔어요. 승진시험을 코앞에 둔 때라 산부인과에서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태범이 덕분인지 시험도 잘 치르고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출산 전에 출산육아 책을 사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백일 동안 태범이를 키우면서 '이론과 실전은 역시 다르구나'하고 새삼 느꼈고,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애 키우는 재미구나'하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백일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자라줘서 고맙고, 3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이느라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아빠 편하게 밤에도 잘 자는 태범이가 대견하네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태범이가 자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도 슬픔을 주는 날도 있겠죠? 소중하게 이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끈을 잘 잡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태범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사랑해~♥

글·사진 전부순

인간과 산신이 공존하며 걷는

관동관문 황홀한 '옛길'

강원 평창 '대관령 옛길'

영동과 영서 땅을 잇는 중요한 교통요지 대관령(大關嶺)은 예부터 아흔아홉 구비라 불릴 정도로 험한 고갯길이나, 산마루에 서면 동쪽으로 멀리 동해바다와 강릉 시가지가, 서쪽으로는 대관령 고원과 겹겹의 구릉들이 한눈에 조망된다. 영동권의 방어요새요, 문화와 물자가 들고 났던 대관령 옛길, 괴나리봇짐을 지고 짚신감발로 오가던 옛 선비들과 쪽지게에 무거운 짐을 싣고 발밤발밤 산길을 올랐을 소금장수와 선질꾼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지정 명승 제75호는 물론 강원도 명품 산소길 18선으로 뽑았다.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유서 깊은 옛길을 향해 대관령으로 떠난다.

영동고속도로 횡계 나들목에서 나와 강릉방면 456번 지방도를 타고 도착한 예전의 대관령휴게소가 대관령 옛길이자 강릉 바우길 2코스의 시발점이다. 주차장에서 커다란 바람개비가 '웅웅~' 소리 내며 도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사성황당 쪽으로 접어든다. 마른장마 여파 때문일까. 호젓한 길 옆에 도열한 나뭇잎들이 힘이 없다. 순간 누구를 위한 굿판을 열었는가, 귀에 익은 꽹가리 소리가 숲을 뚫고 메아리친다.

대관령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치성을 드렸을 국사성황사에는 두 마리 호랑이가 말을 탄 도사를 양 옆에서 호위한 모습의 국사성황신을 모셨다. 당나라로 유학, 제안 대사로부터 심인을 전수받은 뒤 중국 각지를 돌면서 선정을 닦고 귀국하여 사굴산문을 연 통일신라의 범일(810~889) 국사가 성황신이다. 그는 명주도독의 청으로 굴산사에 주석하면서 40여 년 동안 관동지방에 불법을 전파했다. 입적과 동시에 대관령 성황신으로 모셔졌고, 지금은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그의 출생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1

대관령 옛길(바우길 2코스)

대관령(신재생에너지전시관)→국사성황당→반정→이병화 유혜불망비→원울이재→옛 주막터→우주선화장실→대관령박물관

▶ 약 11㎞, 3시간 소요

전하며, 산신당에 모신 대관령산신은 호랑이를 대동한 김유신 장군이라 한다.

학산리에 사는 한 처녀가 해가 들어있는 우물물을 마신 뒤 14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다. 이를 안 처녀의 어머니는 산속에 아이를 버렸으나, 나중에 보니 학이 주는 열매를 받아먹으며 살아있었다. 처녀는 하늘의 계시로 알고 다시 데려다 정성껏 기른다. 아이는 15세 때 출가하여 국사가 됐는데, 바로 범일이다.

강릉단오제는 판소리 ·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록된 우리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중국 단오와 힘겨운 경합을 벌였지만 강릉단오제가 최종 선정됐다. 단오는 애초 중국이 원조(?)이나 굴원의 고사와 설화적 기록에만 의지하여 탈락했단다. '천년의 축제'로 알려진 '강릉단오제'의 시발점이 이곳이다. 음력 4월 15일 국사성황제(영신제)를 지낸 뒤 신목(神木)잡이가 성황당 뒤편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 한 단풍나무 아래 멈추면 갑자기 나무가 '부르르~' 떤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단수처럼 국사성황신이 나무를 타고 내려왔다는 신호다. 신목은 범일의 고향 학산마을에서 제를 지낸 뒤 강릉 남대천변에 있는 국사여성황사에 모신다. 단오를 맞아 1년에 한번 성황신 부부를 합방시키는 일은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강릉민들의 염원이기에, 이때는 죄인이 숨어들어도 소도처럼 잡아가지 못했단다. 일제강점기 시절 거의 모든 지역의 단오가 사라진 반면 오직 강릉단오만 명맥을 이어온 까닭은 국사성황제의 제례와 굿당의 무속신앙, 그리고 난전의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이리라. 국사성황당 뒤편 오르막 숲길 끝, 선자령과 대관령 옛길로 가는 길목이다. 고려의 문인 김극기는 큰 고개라는 '대(大)'와 동서를 가르는 경계이자 험한 요새란 뜻의 '관(關)'을 써서 '대관(大關)'이라 이름 지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대관령은 영동의 진산으로 중앙과 지방,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 지리적 관문이자 문화적 경역이요, 상징적 공간이다' 했으며, 고려사는 '강릉 출신 김순식이 왕건을 돕기 위해 출병, 대관령에 이르러 제단을 만들어 승전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기술하여,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여겼다.

원래 강릉단오제는 대관령 산신, 즉 김유신이 주인공이었다. 강릉 출신 허균은 대관령산신제를 본 뒤 '대령산신찬병서(大嶺山神贊竝書)'에 소개했다.

계묘년(1603) 여름 명주(강릉)에 있을 때 사람들이 5월 길일을 택해 대관령 산신을 맞이했다. 내가 수리(首吏)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산신은 신라

1 풍수가들은 대관령을 '자물쇠 형국'이라 하는데, "평생 대관령 한 번 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은 그만큼 넘나드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진은 길손들이 우리나라 최대 참나무숲을 지나고 있다.

2 대관령 정상에서 흘러내린 시냇물은 골짜기마다 모여 작은 폭포와 물웅덩이를 만들며 굽이쳐 내려간다.

3 영동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해발 832m 대관령길로 수많은 역사적 사연과 서민들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

4 백두대간의 진고개 · 진부령 · 한계령 · 미시령 중 대관령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고개로 영동과 영서를 통하는 대표적인 관문이다. 사진은 반정을 알려주는 표지석이다.

5 반정에 주막을 지어 나그네들에게 침식을 제공한 참된 봉사자 이병화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어흘리 주민과 장사꾼들이 세운 비석이 '향리 이병화 유혜불망비'이다.

대장군 김유신"이라 했다. 유신이 어려서 명주로 유학왔을 때 산신이 검술을 가르쳤고, 명주 남쪽에 있는 선지사에서 90일 만에 만든 그의 칼은 빛이 달빛을 능가했다. 유신은 그 칼로 고구려와 백제를 멸했으며, 죽은 뒤는 대관령의 신이 됐다. 영험해서 고을 사람들이 해마다 5월 길일 향화를 갖추고 이곳에서 신을 맞아 모시고 단옷날에는 온갖 잡희를 베풀어 즐겁게 해준다. 신이 즐거우면 풍년이 들고 노하면 반드시 풍수의 천재지변을 준다고 했다."

역사의 실존인물이 대관령 수호신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황제로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범일국사는 강릉인으로서 굴산사를 세워 일찍부터 존숭됐기에 축제를 통해 토착세력 강화라는 의지 때문에? 신라 이래 고려까지 성했던 산신신앙이 조선 중기부터 점차 마을신앙으로 바뀐 신격 변화 결과로? 조심스런 추측 속에 발길은 구불구불 내리막길을 따라 반정으로 향한다.

처음에는 오솔길이었으나 조선 중종 때 남곤과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 일파를 숙청한 강원관찰사 고형산이 우마차가 다닐 정도로 길을 넓게 닦았다. 그러나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군이 이 길을 이용해서 한양을 쉽게 함락시켰다는 이유로 인조는 고형산의 묘를 파헤치기까지 했다. 그래서일까. 구릉 사이 고갯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참나무 숲이 짙고, U자 길은 어른 서넛은 능히 어깨를 맞대고 갈만큼 넓다.

굽이굽이 길마다 옛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북하다. 오세신동 매월당 김시습, 남당 한원진 외 강원관찰사로 부임하는 관리는 물론 많은 시인묵객들이 헌사한 시와 그림 때문이다.

大嶺雲初捲
대관령 구름이 처음 걷히니
危顚雪未消
꼭대기 눈이 아직 남아 있네
羊腸山路險
양장처럼 산길은 험한데
鳥道驛程遙
조도같은 역정은 멀기만 하네
老樹圍神廟
늙은 나무 신당을 에워싸고
晴烟接海嶠
맑은 안개 바다 산에 접했구나
登高堪作賦
높이 올라가 글을 지으니
風景使人遼
풍경이 사람의 흥을 돋는구나
– '대관령' 김시습 –

6 사방 수호신의 이름을 딴 청룡방 · 백호방 · 주작방 · 현무방과 토기방 · 우리방 등 6개 전시실에서 2천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대관령박물관.
7 대관령은 흔히 구절양장, 아흔아홉 고개라고 한다. 율곡이 대관령 굽이를 넘을 때마다 곶감 한 개씩 먹었는데, 대관령을 넘고 나니 1접(1백 개)에서 하나만 남았다는 데서 유래됐단다.

6

7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큰길과 오솔길, 굽은길 등을 정신없이 걷다보면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못할 경우가 많다. 마치 앞만 보고 빨리 걸어온 것처럼 길은 우리네 인생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숲길을 내려와 예전 영동고속도로를 건너면 '대관령 옛길'이라 쓴 바위가 있다. 반정(半程)이다. 정(程)은 거리를 나타내는 리(里)의 또 다른 단위로 횡계에서 명주까지 오가는 거리의 절반이란 뜻과 신목을 모시고 가는 도중 잠시 발쉼하는 자리다. 잠시 목을 축이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른다.

처음과 달리 길은 조금씩 완만해진다. 곳곳에 돌무더기를 쌓은 서낭당에 인사를 하며 20분쯤 내려오니 돌로 작은 울타리를 두른 곳에 '향리 이병화 유혜불망비(鄕吏李秉華遺惠不忘碑)'가 있다. 영조4년(1728) 강릉에서 편찬된 '임영지(臨瀛誌)'에 따르면 '이병화는 강릉 관아의 기관(記官)이란 향리다. 대관령은 험한 길임에도 사람 왕래가 빈번하나 민가가 없어 겨울이면 길을 잃어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이를 근심하던 이병화는 반정에 주막을 지어 어려운 나그네에게 침식을 제공한 참된

8 금강소나무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길손들의 모습이 평화롭다. 대관령 옛길은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나들이로 서도 손색없는 명품길이다.
9 두 마리 호랑이가 말을 탄 도사를 양 옆에서 호위한 모습의 국사성황신은 통일신라의 고승 범일이다.
10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복원한 주막은 길손들이 옛길의 정취를 편안하게 느끼며 쉴 수 있도록 만든 쉼터다. 주막 옆 샘터에서 길손들이 목을 축이고 길을 떠나고 있다.

봉사자였다'고 밝힌다. 이병화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어흘리 주민과 이곳을 오가던 장사꾼들이 건립한 비석 앞면에는 다음의 시가 적혀있다.

돈 1백 냥 이자 늘려 나그네 먹고 잘 집을 짓고
이로 생활하니 굳이 농사지을 일 없네
길손은 쉼터를 얻고 이 사람은 오두막 생겼으니
조각돌에 그 행실을 새겨 오래도록 기리겠네

단원 김홍도의 '대관령도'도 있다. 산수화의 밋밋함을 벗어나려 앞의 낮은 산은 진하게 그렸고, 왼쪽으로 경포호가 선명하다. 길은 산 사이를 돌아 동해로 이어지며, 빈 하늘은 '대관령' 글자로 상단부에 배치했다. 1788년 정조의 명을 받고 금강산을 비롯해 영동 일대의 명승을 두루마리에 길게 그려 바쳤는데, 대관령도도 이때 그린 게 아닐까. 또한 조선의 현모양처이자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친정 강릉에서 율곡을 낳아 길러 6살(1541)에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지은 사친시(思親詩)도 감상한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한양에서 6백여 리 떨어진 강릉부사로 부임할 때 자신을 한탄하며 울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는 백성과 든 정을 잊지 못해 '울고 넘어간다는 고개' 원울이재[員泣峴]를 넘자, 상기된 볼에 와 닿는 바람이 참 귀하고 상긋하다. 아름드리 금강솔숲을 지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무하며 오른쪽으로 흐르는 장쾌한 물소리를 벗 삼아 징검다리를 건너면 흙벽의 귀틀초가집, 주막이다.

2008년 10월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복원한 주막은 길손들이 옛길의 정취를 편안하게 느끼며 쉬는 쉼터다. 방안에는 농촌과 산촌에서 사용한 생활용품들-왕골 돗자리, 볏짚 맷돌 방석, 나무됫박과 함지박, 대나무 광주리, 다듬잇돌, 눈신발인 설피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탁주잔을 건네고, 칸막이 너머에는 선비가 책을 보는 모습이 연출됐다. 바깥벽에는 쟁기와 써레 같은 농기구를 걸어놔 옛날 향수를 일깨우고, 개구리를 만들어 앉힌 이색적인 물레방아는 쉼 없이 물을 뿜으며 돌아간다. 주막을 나오면 계곡이 바로 옆이다. 흐르는 물로 땀을 훔치고 길을 나선다. 대관령 출구를 지나면 다시 속세에 왔음을 실감한다. 우주선 카페를 비롯 식당이 즐비하다. 여기에서 대관령 자연휴양림과 대관령 박물관으로 길이 나뉘고, 대관령 박물관까지는 30분 거리. 참고로 보광리 게스트 하우스는 10월까지 예약이 차있어 당분간 이용하기 어렵다.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DK

최고 소프라노의 멈추지 않는 도전

공무부 설계2과
홍보인 사우의 롤모델
소프라노 '조수미'

요정도 귀를 기울인다는
목소리의 주인공 소프라노 조수미,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그녀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내 인생의 롤모델

소프라노 '조수미'

글 | 홍보인(공무부 설계2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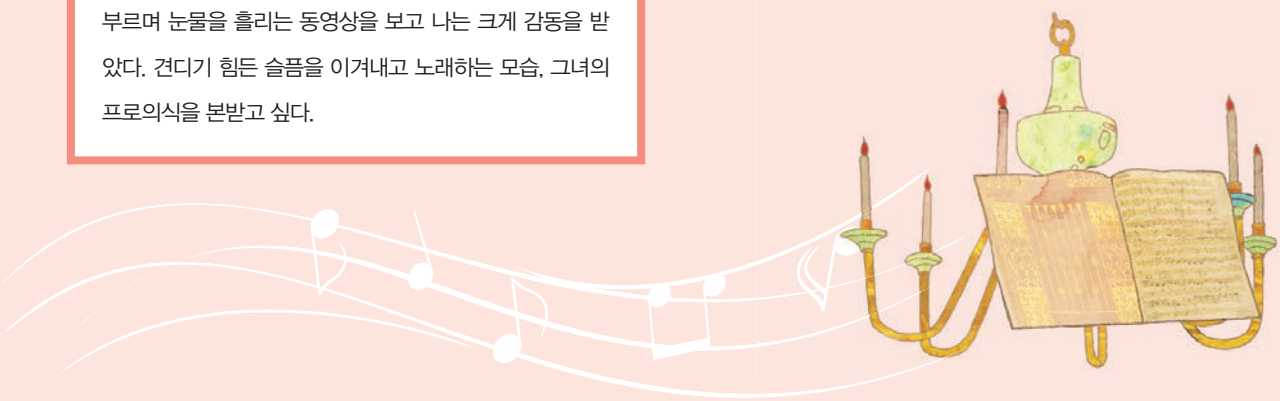
조수미는 동양인 최초로 국제 콩쿠르 6개를 석권하고,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연으로 공연한 최초의 동양인 프리마돈나다. 동양인 최초의 이탈리아 황금 기러기상을 수상했고 비 이탈리아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국제 푸치니상을 받는 등 이미 '최고의 소프라노'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국악 선율과 성악을 합치는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희귀 오페라들을 발굴해 음악적 욕심을 채우고 싶어요. 1년에 하나씩 차곡차곡 제 음악세계를 펼칠게요."

워너뮤직에서 꾸준히 음반을 발표하다가, 본인이 세계무대에 내놓은 첫 번째 앨범을 만든 유니버설뮤직 도이치그라모폰과 전속계약을 하며 조수미가 한 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재능, 즉,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한다는 뜻이다. 끊임없이 바로크음악, 전통 민요 등에 도전하면서 '만능음악인'을 꿈꾸는 자세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께서 당뇨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파리에서의 독창회를 이어갔다는 조수미. 앵콜곡으로 아베마리아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동영상을 보고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견디기 힘든 슬픔을 이겨내고 노래하는 모습, 그녀의 프로의식을 본받고 싶다.

성악가가 될 운명?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조수미의 어머니는 성악가가 꿈이었다. 조수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24시간 마리아 칼라스 음악을 틀어놓았을 정도였다. 조수미는 어렸을 적 글을 배우기 전에 피아노부터 쳤을 정도로 음악 신동이었는데, "두드리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할머니의 믿음 때문이라는 재미난 배경이 있다. 셋방살이하던 형편임에도 할머니께서 피아노를 장만해 주셨다고. 조수미 스스로 "성악가가 되기로 결정된 운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수미는 칼라스와 서더랜드의 뒤를 잇는 이 시대 최고의 벨칸토 소프라노로 평가받는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912년에 작곡한 〈낙소소의 아리아드네〉 '체르비네타의 노래'는 최고음으로 20분이 넘도록 쉬지 않고 불러야 하는 고난도 곡이어서 슈트라우스는 이 곡을 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악보의 일부를 수정했었다. 그러나 1994년 조수미는 세계 최초로 수정되지 않은 원본으로 부르는 기록을 남겼다.
그녀의 프로의식은 남다르다. 당뇨로 돌아가신 아버지 소식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인 그 음악회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너의 도리"라는 어머니 말씀에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한 적도 있다. 공연 막바지에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서는 저희 아버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 공연을 이어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조수미는 평범한 성악가로 남기보다는 스스로를 '엔터테이너'(노래뿐 아니라 의상, 세팅 등 아티스트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는, 늘 새로운 음악으로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만능음악인)이고 싶다고 한다. "정통 성악에서 벗어난 '외도'에 대해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20년간 정말 자신감을 갖고 했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결과는 어떨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한다.
"예술가로써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조수미는 선하지 않은 사람의 노래는 아무리 잘해도 감동이 오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또 준비한다.



글 박상진(진주지사) 자료제공 고스트파크사무국

오싹하게 즐기는 한여름 밤의 공포

합천 고스트파크축제

일 정	2014년 7월 17일(목)~8월 17일(일)
	저녁 7시~밤 12시
장 소	경남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예 매	티켓링크, 테마파크 (비용 30,000원)
문 의	고스트파크사무국, www.ghostpark.kr

합천영상테마파크의 파격적이고 오싹한 변신

'각시탈', '써니', '태극기 휘날리며' 등 다양한 시대물 작품들이 촬영되었던 합천의 영상테마파크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파격적인 변신을 한다. 2014년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한국의 악명 높은 열대야를 물리칠 오싹한 '고스트테마파크'로의 변신이 그것.

이미 작년 '호러마을'이란 이름으로 이색적인 축제를 진행한 바 있는 합천영상테마파크는 '2014 고스트파크 축제'라는 새로운 이름과 더욱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더 생생하고 오싹한 공포를 제공한다. 또한 단순하고 수동적인 놀이공원의 공포체험과는 다르게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어, 보고 듣는 것을 비롯한 오감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짜릿한 공포를 체험할 수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공포'들의 향연

'2014 고스트파크축제'는 영국의 호러박물관인 '런던 던전', 일본의 '감금병동'을 모티브로 시작됐다. 다양한 공포체험과 스포츠 페스티발의 신개념 '좀비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공포 캐릭터 의상을 제공해주는 '마녀의 집'을 비롯하여 직접 영화 속 공포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는 '호러분장실', 공포스러운 마술과 아찔한 스토리로 무장한 마술쇼 '매직 판타지아', '고스트헌터' 등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또, 합천 고스트파크축제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축제들을 뛰어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분장가를 투입하여 사실적인 분장을 재현해냈고, 각종 공포체험장은 드라마 세트팀이 직접 제작하여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세트를 만들어냈다.

특히 '고스트파크'의 공포체험 중 하나인 '드라큘라의 저택'은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세트팀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축제를 위해 만들어진 세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저택'이란 명칭을 얻었다. 이처럼

'2014 고스트파크축제'는 축제가 열리는 합천영상테마파크만이 갖는 장점을 통해 최고의 공포축제를 만들어냈다.

온가족이 함께 '알짜배기'로 즐기는 축제

'2014 고스트파크 축제' 중 '감금병동'이나 '좀비런'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은 나이제한이 걸려있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가족용 마술쇼 '매직 판타지아'와 페이스페인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호러분장실', 미션을 완수한 어린이에게만 한정 수첩을 지급하는 '고스트 헌터' 등이다.

합천 황강 인근에는 캠핑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위한 '고스트파크' 전용 캠핑장을 운영한다. 텐트 및 대부분의 침구(베개 제외)는 기본으로 준비되어있고, 바비큐그릴과 같은 캠핑장비들은 캠핑장에서 유료로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 없이도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다. 더위를 날려줄 공포체험에 다양한 볼거리, 가족과의 잊지 못할 캠핑 등 이만하면 정말 '알짜배기' 축제라 할 수 있겠다.

각양각색 개성을 살린 귀신분장의 시민들
무더운 더위를 날려줄 귀신거리

고스트파크축제
오실 때
합천 대경주유소
꼭 들러주세요!

합천하면? 해인사! 그리고 사찰음식전문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있는 곳인 해인사를 들르고 나면 출출할 때 들르기 좋은 식당이 있다. 20년 전통의 해인사 사찰음식점으로 건강과 맛 모두 챙기기를 원한다면 꼭 먹어보기를 추천한다.

사찰음식전문 맛집
뚝배기가든식당(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비로전)

진주지사 **박 상 진** 사우

합천 대경주유소

합천 읍내에서 정양늪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주유소다. 무엇보다 주유하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세차서비스는 합천 제일이라고 한다. 근처 정양늪 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철새 및 조류를 관찰할 수 있고, 6km 떨어진 합천댐에는 빙어회와 매운탕을 맛볼 수 있다.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 3 (정양리 103-1)
☎ 055-933-3300

글 정재연(반디앤루니스 북매니저) 자료제공 박은정(기술교육팀)

역사 뒤에 숨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

EBS 지식채널e 〈역사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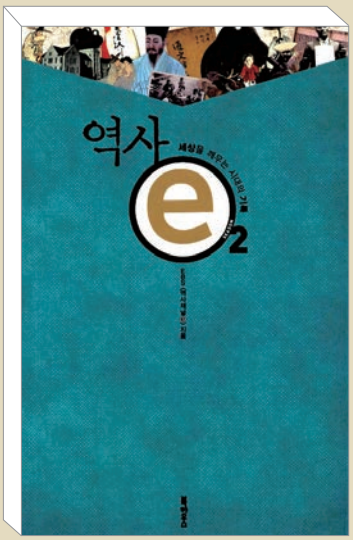
신채호 선생(1880~1936)은 '조선상고사'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했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1874~1965) 역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역사교육'은 지루하고 어려운 것으로만 인식되어 많은 이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EBS에서는 2011년 "세상을 깨우는 시대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역사채널e'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여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다. '역사채널e'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 〈역사e〉 시리즈다.

〈역사e2〉는 '역사채널e'에서 방영된 스크립트에 내용을 더 보충했고, 현직 국사 · 역사 선생님들의 감수를 통해 고증,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방송에 방영된 사진, 그림 등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 담아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역사를 서술한다.

〈역사e2〉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제와 인물들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이슈가 되는 몇몇 문제점들을 역사적 사실로 빗대어 비판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혼수품은 오직 수의 하나였다는 '단 하나의 혼수'편은 현재 과열화되고 있는 결혼 · 혼수비용에 대한 문제적 시선을 보낸다. 조선시대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설명하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편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문제와 선입견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한다.

이렇듯 〈역사e2〉는 길지 않은 내용, 무겁지 않은 소재를 가벼운 방식으로 다루면서도 문제시되고 있는 현대의 고질적 문제점들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역사e2〉 이렇게 읽었습니다

임영섭(윤활유1과)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여러 역사서적을 접하던 중 사내도서실을 통해 처음 〈역사e〉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e〉만의 독특한 역사 접근방식과 해설방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사e2〉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해 역사와 역사적 사건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왜곡 없는 우리의 역사가 제 마음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김윤호(환경운영과)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단순히 암기하는 '앎'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가 겪은 시대를 체험함으로써 나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e2〉는 박제된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시대상을 담고 있기에 나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책이다.

본 도서는 지난 7월 1~31일 공장 자료실에서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나치군을 몰아낸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멤버들

현대적인 무대구성과 전통음악의 재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평롱'

〈세종 · 충무공이야기〉 전시 현장

문화 콘텐츠

〈역사e2〉와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국악

역사를 이어받는 국악인의 자세

평롱 : 그 평안한 떨림

전통한국음악의 현대적 재해석

일시 2014년 5월 1일~12월 31일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평롱〉은 판소리, 민요 등 한국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콘서트다. 악학궤범 서문의 '악(樂)'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종묘제례악, 수제천, 아리랑, 판소리 등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한국 전통음악이 공연의 핵심! 무대, 영상, 조명 등이 어우러진 21세기형 콘서트이며, 최첨단 미디어아트인 3D 프로젝션 맵핑이 결합되어 음악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미드

살아남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밴드 오브 브라더스

현재의 거울로 삼을 세계대전의 상처

제작 스티븐 스필버그
편성 미국HBO
방영 2001년 9월 9일~11월 4일

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10부작 미니시리즈다. 가장 의미있는 수상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자들을 위한 새로운 헌정에 대한 공로'로 수상한 피바디상. 사실적인 전투묘사로 전쟁의 상처와 폐해를 그려냈다. 무엇보다 극중 나오는 전쟁에 대한 언급은 가슴 깊이 교훈으로 남는다. 의무병인 병사는 기도한다. "제가 보살필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전시

역사 속 위인 따라가기

세종 · 충무공이야기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살아있는 가르침

일시 상설전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세종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무료

과연 세종대왕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충무공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전쟁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은 대단한 위인이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길잡이라면, 역사 속 위인은 사람들이 살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실천한 선생님과 같다. 듣는 것만으로는 알기 힘든 생생한 두 위인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세종대왕 · 충무공이야기〉 전시를 찾아가보자.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DK

'자기상실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관계중독은 어린 시절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 관계중독을 개선하는 데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홀로 선 '나'는 어디로 갔나요?

관계 중독

글 싣는 순서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카페인 중독
게임 중독
탄수화물 중독
관계 중독
도박 중독
성형 중독
운동 중독
마약 중독

01. "너 없이는 못 살아~!"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혼자 있지 못하고 늘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통제력 상실 및 집착, 금단증상, 내성 등의 양상이 일반적인 중독의 증상인데 관계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비합리적일만큼 인간관계에 집착한다. 둘째, 다른 제3자의 자극이 없으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셋째, 자기 가치를 관계 안에서만 찾으려 하고 결핍을 채우려한다. 결국 '자신'이 소진되어 가거나 관계가 파행적으로 흘러가는데도 말이다.

02. 두 가지 유형의 관계중독

관계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의존형과 돌봄형이다. 두 유형 모두 애정과 보살핌의 결핍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 의존형은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려는 아이 같은 사람이다. 반대로 돌봄형은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기에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진다. 어른의 성향을 가진 듯이 보이지만 욕구를 뒤집어서 표현할 뿐 사랑과 돌봄을 받고 싶어 한다.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두 유형 모두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는 '자기상실 증후군'이다. 이들은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존성이나 문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만다. 관계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03. 내가 바로 서야 건강한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관계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그러니 관계맺음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찾고 의존하게 된다는 점. 즉, 나의 결핍을 바로 보지 않고 채우려고 한다는 점이다.

관계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약함이 곧 실패는 아니다. 외로움, 고독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다. 이런 감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곧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결핍과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또,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구분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거절하는 훈련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주장과 거절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도 관계중독? 관계중독 체크리스트

하루라도 이 사람을 안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와 헤어지면 살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나쁜 관계라고 생각하면서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 이런 감정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관계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 나는 사랑스럽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 ☐ 칭찬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불편하다.
- ☐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자주 공허하다.
- ☐ 기쁨, 슬픔, 사랑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 ☐ 나의 실수를 용납하기 어렵다.
- ☐ 남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
- ☐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 ☐ 나의 가치는 남을 도울 때 높아진다.
- ☐ 남의 부탁을 거절할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 ☐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때때로 기꺼이 자원한다.
- ☐ 나만을 위한 일을 하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 내가 원하는 일보다 소중한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한다.
- ☐ 상대의 반응이 걱정돼 솔직히 표현하지 않는다.
- ☐ '너와 나 단둘'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안하다.
- ☐ 상대방이 화나 있으면 나 때문일까 걱정된다.

5개 이상 : 관계중독이 의심됨
8개 이상 : 관계중독으로 진단

독자퀴즈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김지현 유황1과
임종익 동력4과
김영옥 브랜드마케팅팀 위예림 사우 가족
정병석 금동주유소(전북 김제시 금산면)

USB저장장치

김우년 Aromatics생산2과
배문한 분해2과
서**효성** 기계2과
김태정 윤활마케팅전략팀

손 모아 만드는 사보
꿈 모아 그리는 내일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 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주요소식〉 사우디 아람코 한진 보유지분 매입

아람코가 한진 주식을 전량 매입하면서 우리회사가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올라서서 뿌듯합니다.

강도연(탈황1과)

〈주요소식〉 과학문화재단 에티오피아 시멘트 사업 후원

빈국에 대한 단순 지원을 뛰어넘어 발전가능성을 높이는 후원 사업이 바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필규(예방정비1과)

〈주요소식〉 아름다운눈빛미술제 후원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드로잉 부문에 출품하고자 합니다.

이기용(남고문주유소.전남 나주시 남고문로)

〈최강 팀〉 검사부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부 직원들 덕분에 최고 품질 기름이 만들어지는구나, 알게됐습니다.

이상은(고객.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햇살나눔〉 캘린더

사회공헌활동과 나눔소식으로 사보 한 권이 꽉 찬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박경수(고객.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No.1 주유소〉 경안주유소

제 고향 경북 안동에 갈 때마다 꼭 찾는 단골 주유소랍니다. 책에서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미경(고객.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두런두런 수다방〉

부자 단둘이 여행한 사연에 부러운 마음이 들고 반성하게 했어요. 조만간 아버지와 등산해야겠어요.

김동건(고객.부산시 서구 해돋이로)

〈가족 이야기〉

안정된 직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방지홍(광영주유소.전남 광양시 강변로)

〈걷고 싶은 길〉 익산 둘레길 "무왕길"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서린 길을 직접 걸어보고 싶습니다.

정승은(고객.울산시 남구 강남로)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